

포스트 코로나와 축성생활

이연학(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들어오면서

‘자가 격리’에서 정점을 찍는 이른바 ‘언컨택트’는 자기 보호 뿐 아니라 타인 배려도 목적으로 삼습니다. 모두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사실을 무시무시하게 실감하는 세월입니다. 요즘 우리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덕목을 자기를 위해서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 첫 팬데믹 상황에서 읽은 두 신문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6주기를 맞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은 우리에게 ‘공감’과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며 우리는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둘째는 손티 로위란 이름의 미국 육상 선수가 남긴 ‘자가 격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각자 고립되어 지냄으로써 세계가 하나 되는 행위.”¹⁾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수도자들이 왕왕 ‘세속’이라 부르는 세상이 인간적 윤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식화되는(수도자화?) 중인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이 지금 더 정신줄을 챙겨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특히 둘째 기사는, 제게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유명한 고대 사막 교부의 잠언 한 구절을 연상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도승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De Oratione**).

이즈음부터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세상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약삭빠른 일종의 ‘시장 선점’ 작업에 몰두하라 다그치는 음성들은 예나 이제나 항상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이라 논외로 합니다(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

1) <경향신문>, 2020년 4월 6일, 기자칼럼(최희진) 참조.

그럼에도, 멀리 그리고 깊이 내다보며 고민하는 각계 인사들이 경제(홍기빈), 정치(유발 하라리), 생태(강우일, 최재천 등) 등의 영역에서 인류가 총체적 방향 전환 혹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을 넘어 희망 같은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제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수도화’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 내지 인식할 수 있겠냐, 그리고 혹시 모종의 전망 같은 걸 제시해 볼 수 있겠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을 ‘전문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저 같은 시대를 사는 한 수도자의 관점과 체험을 나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글 <질병의 시대에 그리스도교>(김선태 주교 역)²⁾ 담긴 통찰과 전망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할리크 신부님은 교회 전체의 체질 개선 혹은 개혁이란 맥락에서 이 상황을 하나의 ‘카이로스’로 받아들이고 “일단 멈추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제안하십니다. 우리는 수도생활을 염두에 두고 같은 취지의 ‘관상적 식별’을(할리크 신부님 표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도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기회로 받아들”여(강조 단어 원문 : ‘그리스도교’) 보고자 합니다.

1. 종말영성

1.1. 종말의 징조 : 유예(猶豫)와 전복(顛覆)

요즈음 저는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는 표현을 지인들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모든 것이 ‘우선멈춤(Halt!)’ 상황인데, 보통은 그 ‘우선’이란 게 아마도 ‘당분간’이란 뜻일 테고, 그래서 ‘조만간’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흘러갈(“business as usual”) 거라고 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당분간’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그 ‘조만간’이 너무 늦게 도래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그러는 동안 세상의 기존 구조와 흐름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있기 십상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며 벌어야

2) <가톨릭신문>, 2020년 5월 17일, 10면 참조

먹고 살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은 막막하고 암울하기가 가위 ‘종말’이라 할 만하다 느낍니다. 우리 교회 역시 대면 미사와 각종 행사가 다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수도회들도 어려움의 정도와 종류는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리라 봅니다. 미얀마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 첫째 셋다운과 둘째 셋다운을 틈 타 우여곡절 끝에 최종 목적지 뽀우툰이란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수도원 설립을 위해 원래 계획했던 일들은 반의 반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함께 겪고 있는 이 ‘일단정지(Halt!)’ 체험은 제게 귀에 익숙한 교회 용어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수스펜시오(Suspensio)’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특히 사제에 대한) ‘직무정지’란 뜻으로 많이 쓰지만, 신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성소를 식별하고 확인하기 위해 휴학시킬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sub(아래에)과 pendere(매달리다) 동사가 합쳐 이루어진 말이니까 어원상으로는 ‘아래 매달려 있는 상태’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한 영어 suspension도 “매달린 상태, 부유(浮游)하는 상태, 미결정, 어중간 함, 지불정지 혹은 파산, 자동차 완충장치” 등의 많은 뜻을 품고 있지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중간한(‘중간의 어려운’) 상태, 그 총체적 유예 혹은 유보 상황이야말로 스스로를 당연히 주체로 인식하는 인간에게 가장 난감한 도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만큼 ‘주체’가 아니란 깨달음, 일종의 한계 자각, 혹은 더 근원적인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고(“아직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느끼는 데도 강제적으로 끝(장)을 마주하는 체험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이 ‘유예’와 함께 우리가 하는 체험이 또한 ‘전복’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 ‘트렌드’, 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과거와는 전폭적으로 다른 질서의 도래를 알려주는 징표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른바 ‘선진국’과 ‘후진국’의 해묵은 질서가 이번처럼 전복된 경우가 또 있었단가요? 무시당하던 이른바 ‘약소국’이 ‘선진강국’으로 부상하고(방역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거만하던 소위 ‘강대국’들의 꼴이 이래저래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없이 맞다고 믿고 받아들이던 세상의 위아래가 제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본 신문기자가 본인 트위터에 다음의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고 하던데, 재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세계를 석권하고, 전쟁도 아닌데 초강대국 대통령이 무서워 별별 떠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의미에서 통쾌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성모님께서 ‘마니피캇’에서 노래하시던 바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실현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루카 1,51-52)

1.2. 종말의 시간 : 끝

그리하여 우리는 지극히 복음적이고 고전적인 수도생활 ‘신학의 자리(locus theologicus)’ 하나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즉 ‘종말신학’입니다. 유예와 전복은 전형적인 종말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끝(장) 혹은 ‘막장’에서만 비로소 보이는 게 따로 있지요. 빨리 말해버리자면 그것은 ‘본질’입니다. 죽음을 진심으로 눈앞에 둘 때만 우리는 삶을 날것으로 눈앞에 둡니다. 끝장 체험을 할 때만 가능한 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다 왔다고 선포하신 그 ‘때(카이로스)’는 사실상 세상 나라의 종말이었고, 그렇기에 하느님 나라(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수도생활의 출현도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신학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초세기 수도승들이 괜히 “죽을 거란 걸 기억하시오(Memento mori)!”라고 서로 인사하고 다닌 게 아니고, 중세에 이르기까지 영적 스승들의 초상에 괜히 해골이 그토록 뻗어나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염세적 세계관의 표현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상실해 버린 종말영성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교회에 잘 훈수해 주었듯, 종말신학은 역사에 대한 복음 본연의 관심과 투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광신(狂信)이 아닙니다. 정작 현실참여와 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의 상실이지요.³⁾

성서적 종말론은 ‘시간의 종말’에 관한 허황되고 두려움에 찬 상상이나 그 시기에 대한 계산 따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종말론에서 정작 강조되는 것은 시간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한결같은 확신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을 눈앞에 둔 채 산다는 말은, “마치 ~ 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자세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

3) Giorgio Agamben, *Il mistero del male. Benedetto XVI e la fine dei tempi*, Bari, 2013.

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의 형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7,29-31)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수도생활에 대한 사실상의 최초 언급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독신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공동체 생활, 그것은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무엇보다 “걱정 없는 상태(*amerimnia*)”입니다. 이런 자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역사와 현실)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 내부로부터 질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고 재촉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시작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영성의 핵심은 “지금에 살기” 혹은 “지금만 살기”라고 체험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곱씹으면 글자 그대로 “시간이 없다”는 사실, 시간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끝장을 진지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그리하여 존재의 저 터무니없는-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허무맹랑함을 체험하는 사람은, 대부분 ‘흘러가 버리는 지금(*nunc fluens*)’이라는 보통의 시간체험을 넘어 ‘머물러 있는 지금(*nunc stans*)’ 즉 영원을 체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⁴⁾ 희안하게도 거기에는 “더 바랄 게 없는 자리”요 “지금 죽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끝기도 때마다 우리가 노래하는 시메온의 노래 첫 구절(“*Nunc dimittis*”)의 자리입니다. 잃어버릴 게 없기에 두려울 것도 걱정도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는 시간의 무한한 길이 혹은 양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이야말로 영원이라는 사실을 체험합니다.⁵⁾ 그래서 정녕 “빛이 있을 때 걸어가야”(요한 12,35)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는 ‘일상(日常)’입니다. 정지용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라(혹은 그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 표현했던 바로 그 일상입니다. 아무 걱정

4) “흘러가 버리는 지금이 시간을 만들고, 머물러 있는 지금이 영원을 만든다(*Nunc fluens facit tempus, nunc stans(=permanens) facit aeternitatem*)” : 보에티우스, **De Trinitate**, IV.

5) 아마도 교회의 영성 역사에서 이 점을 가장 깊이 가르친 분이 프랑스 예수회원 장 피에르 드 코사드(Jean Pierre de Caussade, 1675-1751)일 것입니다. 우리말로 (아쉽게도 주로 개신교 쪽에서) <굴복>, <지금 이 순간의 순종>, <자기 포기>,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법> 등의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없지만 연민의 아픔과 투신의 열정은 더 정확되고 단단해 진 이 종말의 자리, 일상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성이 더 맑고 예쁘게 들립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모두가 동등함을 일깨워준다. 바이러스는 공평하다.”⁶⁾

1.3. 종말의 공간 : 경계

작년에 건축가 승효상씨의 유럽 수도원 건축기행 <묵상>을 읽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원은 “가장 기초적 형식의 건축”이라서 건축가에게 “늘 본질을 각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서양 고중세 수도원 건축이 현대 내로라는 건축가들에게 왜 ‘고향’과 같은지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유서깊은 수도원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고 관찰한 결과 수도원에 대해 남긴 정의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경계 밖으로 스스로 추방당한 이들의 공간.”⁷⁾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고중세 수도승 문헌들을 읽어오면서 도달한 결론과 동일합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전환’에 대한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평가는 그 이전과 뚜렷이 다릅니다. “교회가 본디의 모습을 잃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313년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회의 잘못된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이 전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요구에 따르는 세상에 대한 교회 본디의 적대적 태도가 약화되었다.”⁸⁾ 콘스탄티누스 이후 “가난하고 억압받던 교회는 이제 타인을 억압하는 막강한 교회가 되었다.”⁹⁾

교회의 고향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바실리카’가 아니라 카타콤바입니다. 초세기 교회는 자기 역사를 늘 “카타-쿵바스(아래-굴)”에서 즉 글자 그대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혹은 변방(margin)에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교회는 복음과 초세기 교우들이 생생히 간직하던 이 ‘바닥과 가장자리의 감각’을 상실하고 뭐든지 “위로부터,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무력함, 비폭력과 낮고 보잘것없는 처지, 그리고 단순함과 가난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은 빠른 시간 안에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수

6) 이느지,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30일.

7) 승효상, <묵상. 건축가 승효상의 수도원 순례>, 돌베개, 2019.

8) E. 다쓰만, <교회사>, 2-1, 분도, pp. 25-26.

9) 발터 카스퍼 추기경, “순교자 - 진리와 자유의 증인 : 순교신학에 관한 고찰”, <순교의 신학적 고찰>, 도서출판 형제애, 2013, p. 248.

도생활의 탄생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로마제국의 변방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티나와 캅파도키아 등지에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광야로 우르르 물러나는 현상이 바로 이 즈음 발생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첫 수도자들은 중심과 상층부에 포섭됨으로써 길들여진 그리스도교의 위험성을 신앙의 본능으로 알아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힘 있고 안전한 ‘중심’이 아니라 ‘변방’ 혹은 ‘경계’임을 간파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새로운 ‘카타콤바’였고, 새로운 복음 증언-순교(martyria)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세상의 경계 밖으로” 혹은 변두리로 “스스로를 추방”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자발적 망명자’(voluntary exile, 에드워드 사이드)의 원조(元祖)라 할 터입니다.

이 ‘변방’, 혹은 ‘경계’가 종말의 공간이었고, 이 역시 위에서 본 종말의 시간과 함께 수도생활 탄생의 자리였습니다.

이 주제는 알베르 카뮈에게 실로 중요한 것이었지만¹⁰⁾, 서구의 위대한 문학인이나 인문학자들이 으레 그렇듯 그 역시 사실상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오랜 상징 전통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 빅토르의 후고(1096-1141)에 따르면 영적 여정의 궁극적 완성 단계가 바로 이 ‘망명’입니다. “철학하는 이(=수행자, 구도자)에게는 온 세상이 망명지다. 아직 고향에 정을 품은 이는 섬약(纖弱)하다. 그러나 도처를 다 제 고향으로 여기는 이는 강건(強健)하다. 그런데 온 세상이 망명지가 된 이는 완전(完全)하다. 첫째는 자기 사랑을 한 장소에 묶었고, 둘째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렸으며, 셋째는 그 사랑을 소멸시켜버렸다.”¹¹⁾

종말의 공간에서도 종말의 시간에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여기서만 비로소 자기 한계와 허약함을 근원에서부터 체험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할 일도 없거니와 할 말도 없음을 비로소,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全心)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고, 승복-항복(surrender)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인생이 정녕 하느님께 “매달려 있음sub-pendere”을 알아듣습니다. 자기나 남의 구원을 위해 실상 아무 것도 자기 힘으로 할 게 없음을 알아차리기에, 비로소 자비와 은총의 본색이 뭔지를 체험합니다. 이 자리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요

10) 특히 1957년에 나온 단편집 <유배와 왕국(L'Exil et le Royaume)>. 한국어로는 <적지(敵地)와 왕국> (김화영 역)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1) 생 빅토르의 후고, **Didascalicon**, III, 19.

“황성 엠티”입니다. “무너진 사랑탑”입니다. 거기 자아의 ‘성전’은 이미 완전히 허물어져, 어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않습니다.(요한 2,19; 루카 19,44 참조) 이 자리는 자기 노력으로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앙처럼 닥치는 자리입니다. 유배처럼 강제당하는 자리입니다. 혹자는 ‘속수무책’이라, 혹자는 ‘바닥’이라 부르는 이 자리를, 우리는 ‘경계’라고 부를 따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알아듣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something, somebody) 생각하던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nothing, nobody), 아니 애초에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1코린 1,28). 종말의 시간인 ‘끝’에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한다면, 종말의 공간인 ‘경계’에서는 “내가 없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할까요.

그 어떤 자기 합리화도 정당화도 의미부여도 여기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저 자기 참혹한 현실의 현장에 엮어져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암만 생각해도,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끝에 섰지만 한 걸음 더 내 던는(百尺竿頭 進一步) 그런 곳이라 해야 맞습니다. 여기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군말 없이 머물면,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그 극진한 자비를 있는 그대로 몸으로 만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앙드레 루프 아빠스에 따르면, 사람은 이때부터만 ‘영적 생활’ 즉 “하느님 영에 인도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말의 시간인 ‘끝’이나 그 공간인 ‘경계’에서 우리가 하는 체험은 결국 가장 순정한 신앙의 체험 즉 ‘관상’의 체험에 다름 아닙니다.¹²⁾

우리의 사도직도 사실상 이때부터 비로소 가치를 지닙니다. 이때부터만 “하느님의 일”을, “내가 하느님을 위해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쓸모없는 종”의 자유를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루카 17,10) 혹은, <금강경>의 표현으로는, 베풀고도 베풀다는 생각이 도무지 불가능한(無住相布施) 자리에서 일하게 되고, 어디 한 군데 얽매이거나 집착함이 없어도 (말하자면 ‘열정’ 나부랭이 같은 게 없어도) 어디서나 무엇이든 기쁘게 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應無所住 而生其心)

12)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1090-1153)는 유명한 <아가 설교>에서 이런 의미로 ‘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관상적 교회-수도회’에 관한 몽상(夢想)

유예와 전복의 상황에서 종말의 시공간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살며 복음을 증언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1996년 순교한 알제리 아틀라스의 성모 수도원 수도자들을 우선 기억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선 다른 기회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생략합니다. 대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특히 마지막 옥중 서한집 <저항과 복종>을 중심으로)의 예언적 음성(이른바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을 오늘의 우리 수도생활에 가능한 대로 감히 한 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¹³⁾ ‘종교 없는 그리스도교(religionless christianity)’란 그의 표현을 깊이 해석하면 ‘관상적인 그리스도교(contemplative christianity)’란 말로 치환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상이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신앙’과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몽상’이라 한 것은, 본회퍼의 이 표현에 지금도 놀라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알아듣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이에 영감을 받고 수도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게 이해는커녕 몰이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겠다는 짐작에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지만, 부디 아래의 얘기들이 한낱 공허한 망상(妄想)에 그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바라봄 직한 수도생활(望狀)에 대한 작은 실마리나 도전 정도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새출발을 위한 ‘내적 여정’(inward path)이었다면, 이제부터 진행될 이야기는 그 결실로서의 ‘외적 여정(outward path)’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스터 엑카르트 같으면, 전자를 지극히 순정한 수용성으로서의 ‘동정녀(virgo)’, 후자를 풍요로운 결실로서의 ‘부인(mulier)’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적 생활에서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후자가 전자의 진정성을 증언하면서 완성하는 방식으로요.¹⁴⁾

2.1. 타자를 위한 존재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삶을 영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느님이시지!”¹⁵⁾ 마이스터

13) 디트리히 본회퍼,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김순현 역, 복있는 사람, 2016.

14) 마이스터 엑카르트에게는 그래서 ‘활동’이 ‘관상’보다 더 위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루카 10,38-42) 대목에 대해 남긴 두 편의 설교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he complete mystical works of M. Eckhart**, Tran. & edited by M. O'C. Walshe, 2009, pp. 77-90.

엑카르트를 읽고 놀란 적이 있는 분이려면¹⁶⁾ 이 말씀에도 다시 놀랄 겁니다. 하지만 엑카르트가 신비체험의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본회퍼는 지극히 복음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없이 살고 있네. 하느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시네.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마태 8,17이 명시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수난으로 우리를 도우시네!”¹⁷⁾ “하느님 없이 산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 세상 바깥, 저 “성문 밖”으로 ‘추방’하시고(히브 13,12-13 참조)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음을(마르 15,34 참조) 상기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느님 없이” 산 분이십니다. 그것은 지극한 사랑이 마지막에 취할 수밖에 없는 지극한 허약함과 어리석음의 정점이었습니다(1코린 1,18-31 참조).

그분이 세상을 살리신(구원하신) 방식이 애초 이런 식이었습시다. 이런 방식으로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타자를 위한 존재(für die Welt da sein)”의¹⁸⁾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힘으로 눌러 이기고 세상 안에 당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세상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시듯, 교회(그리고 수도회) 역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 점이 <저항과 복종>을 읽는 열쇠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이 점에서 불충실했기에(가톨릭 교회 포함!),¹⁹⁾ 다시 말해 자기 보존과 생존에만 급급했기에 말씀 선포의 ‘권위’와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와 수도회는 당시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를까요? “세상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으로 힘과 공간을 확보하시는 성경의 하느님을 보는 눈”²⁰⁾, 저 관상의 눈만이 교회생활-수도생활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약함(끝-경계) 체험을 통해서만 우

15) 본회퍼, 위의 책, p. 343.

16) 엑카르트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혹은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놓아 버린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 사상>, 분도, 2003, p. 9.

17) 본회퍼, 같은 곳.

18) 1943년 4월 5일, 본회퍼의 본가에 비밀경찰이 들이닥쳐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바로 이 글귀가 쓰인 작은 종이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수감생활을 하다가 종전(終戰)이 얼마 남지 않았던 1945년 4월 9일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19) “독일 주교회의, 과거 ‘나치와 공모 관계’ 고백”,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년 5월 11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2>) 참조.

20) 본회퍼, 위의 책, p. 344.

리는 허약함 속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알아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종내 우리 자신의 ‘종족(수도회!) 보존’과 확장 본능에 충실한 것을 훌륭한 신앙이요 수도생활로 착각하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종내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깨달음에는 (저는 이게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가 도달한 가장 드높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²¹⁾

2.2. ‘종교’ 없는 그리스도 신앙과 수도생활

본회퍼는 바로 이 지점에 ‘종교’와 ‘(그리스도) 신앙’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타자 즉 세상을 위해 수난하시는 하느님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구별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이 보통으로 하느님께 기대하는 것과 정 반대로, 예수님께선 우리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겪으시는 하느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그러니까 ‘수도자’로!) 만들어주지, 특정한 형태와 방식의 종교 행위가 우리를 그리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²²⁾ 정일우 신부님께서 대학 교수와 수도회 양성담당자 등의 자리를 박차고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단지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다고 대답하신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²³⁾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고대 교부들의 전통적 표현에 따라) “하느님이 된다는 것 (*theosis, deificatio*)”은 사실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참) 삶으로 부르십니다.”²⁴⁾ 그리고 그 참된 삶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무력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²⁵⁾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²⁶⁾ 말씀을 “수도생활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만이(참 인간으로서의 삶 - 세상 안에서 겪으시는 하느님 고통에 동참하는 삶만이) 수도자를 만든다”고 옮

21) 졸고, “사목현장을 다시 읽으며”, <분도>, 2012년 겨울호 참조.

22) 본회퍼, 위의 책, p. 345.

23) <예수회신부 정일우 이야기>, 제정구 기념사업회, 2009, p. 51 참조.

24) 본회퍼, 위의 책, p. 347.

25) 같은 곳.

26) 위의 책, p. 345.

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2.3. 몇 가지 유혹

이 맥락에서 우리는 여지껏 별로 의심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태도를 비로소 진지하게 문제 삼아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1) 자기 섬김 : 개인으로나 수도회로나 자신의 쓸모-필요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너무 큼니다. 자기 일이나 역할과 평판이 자기 ‘얼굴(정체성)’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깊습니다. 개인이나 수도회가 자기 생존이나 방어, 자기홍보 등에 몰두할 때, 정말 매력도 신빙성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더 낮지 않은 사람”으로²⁷⁾ 기쁘게 살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입니다.

2) 이원론 : 성속 이원론이 아직도 우리 의식을 너무 깊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그 ‘세상’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세속 정신’을 혼동하는 말투가 아직도 교회와 수도회 안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에 토대를 둔 권위주의의 그림자도 곳곳에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²⁸⁾다. 이 맥락에서, 토머스 머튼의 이른바 “월넛가 체험”을 거듭 읽고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²⁹⁾

3) ‘수도회 종족주의(Religious tribalism)’ : 우리 수도자들에게 ‘정체성 과잉 증후군’이라 부를 만한 게 있다고 느낍니다. 우선 평신도와 교계제도를 향해서는 수도자로서의 자의식 과잉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수도자가 뭇(somebody)인 것처럼 믿고 내세우며 먹혀들지 않으면 흥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수도자의 근원적인 ‘평신도성(laicitas)’을 인지하지 못하면, ‘성직 중심주의(clericalism)’에 대한 우리 비판도 우스운 모양이 된다는 걸 모르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편 사제직’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편, 타 수도회를 향해서는 이른바 ‘고유 카리스마’에 관한 과잉 자의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각 수도회의 고유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한 자부심은 세상에서 ‘빼대있는 가문’을 자랑하는 얼굴이 가소로운 것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역사 날조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7) E. Bianchi, *Non siamo migliori*, Bose, 2002 참조.

28) 영화 <다우트>에 나오는 알로이시우스 수녀님(메릴 스티립 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29) 토머스 머튼, <통회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 김해경 옮김, 바오로 딸, 2013 참조.

그렇게 숭상하고 유지되는 ‘고유 카리스마’가 복음과, 혹은 제자의 길과 무슨 상관인지 묻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구와 수도회 간에도 그렇지만, 수도회들끼리 경쟁과 선점의 밥그릇 싸움 경향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빙성과 매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데, 의외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약 10여년 전 캄보디아 교회에서 여러 수도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일종의 ‘초-수도회 사도직’을 실천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싫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할 지 모릅니다.

2.4. 가장 강력한 도구요 기초인 관상

이런 식별과 실천들이 어떤 종류의 깊은 영적 생활과 체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상적 교회(contemplative church)’나 ‘관상적 수도회’는 봉쇄수도회처럼 신분(state of life)이 다르거나 어떤 ‘내성적 스타일’로 구별되는 수도회가 아니라, 교회(수도회)란 무엇보다 ‘먼저 주어진 어떤 것(선물)’에 대한 응답임을 삶의 각 부문에서 표현하는 그런 교회요 수도회입니다.³⁰⁾ 자기 삶이 ‘행하는 것’, ‘주는 것’이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받는 것’ 그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한 의식-감사임을 아는 태도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로서 우리 삶 자체가 벌써 받은 것, 즉 선물이고, 지금도 이 삶은 하느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음으로써 지탱되며 실현되고 있습니다. “관상은 저 ‘먼저 주어진 선물’(로서의 삶)에 무방비 상태로 활짝 열린 채 자기에 대해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Sarah Bachelard)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렉시오 디비나 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듯 합니다. 고대 교부들과 중세 스승들이 ‘관상’이란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그 순정한 신앙, 그 근원적 수동-수용성-들음의 자세가 렉시오 디비나의 전제요 분위기요 도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관상이 우리를 다시 삶, 그 특별할 것도 예뻐할 것도 없는 일상의 소소한, 그러나 유일하게 중요한 ‘지금’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나가면서 : 텅 빈 광장에서 부르는 새하곡(塞下曲)

30) Sarah Bachelard의 2019년 John Main seminar You Tube 강의를 참조(“A Contemplative Christianity for our time”) ; <https://podcast.wccm.org/episodes/sarah-bachelard-contemplation-and-christianity-in-our-time>

앞으로 세상에서 교회-수도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께서 위에 말씀드린 글에서 ‘텅 빈 교회’ 현상을, 공의회를 기점으로 이미 시작된 다방면의 교회 쇠신을 더 밀고 나가야 한다는 “하느님의 표징이며 호소”로 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올해 사순시기 교종께서 혼자 전례를 거행하시던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령의 ‘광야’처럼, 어떤 중의적(重義的) 메시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느끼는 것은 황량하고 쓸쓸함입니다. 교종께서 거행하는 예식이 있을 경우 성 베드로 광장이 붐비지 않는 경우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너른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곳은 비도 추적거렸고, 늙은 교종께서 언제나처럼 좀 절뚝거리며 힘겹게 계단으로 오르셨습니다. 교회의 ‘호시절’은 이제 영 끝났구나 하는 직감 같은 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텅 빈 공간에 모종의 ‘영성의 기운’ 같은 게 감돌고 있음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지, 나중에 바티칸 <L'Osservatore Romano> 신문에 어떤 이탈리아 주교님께서 “그 저녁 그 텅 빈 광장은 어떤 영성으로 충만했다”는 표현을 쓰신 걸 읽고 참 공감했더랬습니다. 교우들로 붐비는 성전도 좋은 일이겠지만, 텅 빈 성전은 어쩌면 더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은 ‘끝’과 ‘경계’의 자리, 그 종말영성의 시공간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정화하고 소독하여 새로 일으켜 세워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비로소 사목과 고객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배우고, 수도자는 사도직과 마케팅을 혼동하지 않는 법도 침부터 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앞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쓸모없음의 느낌과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 이 래디컬하게 ‘끝’이면서 ‘변방’인 자리야말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제자-수도자로 거듭나는 자리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태 쓸모 있다고 믿어온 것들의 근원적인 무용성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쓸모없는 중”의 쓸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태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의 근원적 사소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사소한 일상사, 그 ‘지금’의 중요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막말처럼 들리지만, 아니 수도회가 세상

에서 없어지면 그게 또 대습니까. 하느님께서도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자기를 없애셨는데요.

그러나 제가 정작 믿는 바는, 바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수도생활의 새로운 실천이, 의미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탄생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한 이야기는 물론 “수도생활은 필요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환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본회퍼가 ‘종교’를 거부하면서 ‘신앙’까지 버리잔 소리를 한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Habitus non facit monachum*)”란 말씀이 정녕 맞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도복-수도생활의 형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수도생활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형태’가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외적 형태에 역겨워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잘 자각하면 우리는 수도복을 벗는 게 아니라 더 진정성있고 복음적인 수도생활의 형태를 창안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수도복도 수도자를 만든다(*Etiam habitus facit monachum*)”고 덧붙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우리 삶을 설명하지 않고, 존재와 삶 자체가 우리가 누군지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자신은 그런 우리 모습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 복음선포와 사도직의 ‘질’은 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종의 다른 ‘권위’ 혹은 매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권위(*ex-ousia*), 그 매력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끝’에서, 이 ‘경계’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in hac lacrimarum valle), 우리 수도자들은 각자의 ‘새하곡(塞下曲)’을³¹⁾ 조용히, 그러나 신나게 부를 일입니다, 아멘.

31) 한나라 이후 먼 변방의 요새로 파견된 장수들이 그곳에서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 한시(漢詩)를 통칭하는 말로, 훗날 하나의 문학 장르로 정착되었다.